

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국제아카데미 통해 대학 지재권 교육에 앞장

한국발명진흥회는 전국 7개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을 통해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의 지식재산권 강의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72개의 무료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과 발명에 대한 인식 고양과 저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 영동, 대전, 조선, 정수기능, 부경, 전남대의 7개 대학은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



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개최한 학술교류 설명회.

으며, 지재권 마인드를 가진 이공계 인재 육성에 있어서도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는 '지방대와 이공계의 위기라는 말로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수

준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수 교육 콘텐츠를 통한 이번 교육이 지식재산권 교육 수준의 향상과 학생들의 자신감 고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발명진흥회와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인하대, 한남대, 전남대, 영동대, 한밭대, 서울정수기능대학, 대전대, 부경대, 김천대학, 충남대, 조선대, 동서대 등 총 12개 대학이며, 7개 대학이 우선적으로 과정을 개설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허넷, 전 세계 특허시스템으로 발돋움 하다

특허청은 WIPO와 협력하여 전자 형태의 국제특허출원서(이하 PCT 출원서)를 관리하게 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전세계 특허청(이하 PCT 수리관청)에 이를 이용토록 하겠다고 지난 10월 5일 밝혔다.

PCT-ROAD(PCT 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라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출원인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PCT 수리관청에서 접수 및 사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2005년 상반기에 전세계 특허청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갑 특허청장은 'PCT-ROAD가 한국 특허행정 효율을 크게 향상 시켰다'라며 '세계 각국의 특허청들도 이 PCT-ROAD를 활용하여 그들의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차장은 'PCT-ROAD로 인하여 전세계 모든 출원인이 PCT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결국 전자출원이 활성화 되어 WIPO를 포함한 전 세계 특허청이 PCT 관련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WIPO는 전자출원 활성화를 위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PCT-SAFE)를 개발하여 금년 2월부터 전세계 출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최대 3백 스위스 프랑(약 28만원)의 수수료 감면혜택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많은 특허출원인들은 WIPO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PCT 수리관청의 접수 및 사무처리 시스템 구축미비로 출원자체가 불가능하여, 출원인은 전자출원으로 인한 편리성 및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미 전자출원 접수 및 사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WIPO의 요청에 따라 PCT-ROAD를 공동 개발기로 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전세계 모든 특허청은 WIPO와 한국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PCT-ROAD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고객 중심 사이트로 전면 개편

특허청은 그간 홈페이지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온 각종 개선요구 사항 및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지난 10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해왔다.

이번에 개편된 특허청 홈페이지는 콘텐츠는 풍부하지만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 전자민원 서비스, 국민 참여, 특허정보 서비스, 특허행정 홍보, 특허행정혁신 등 크게 6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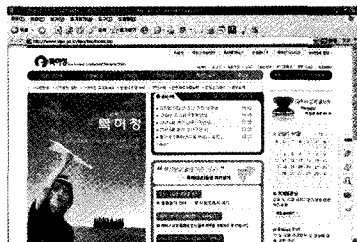
특히 '특허(상표)출원, 처음이세요?' 코너를 마련, 초보민원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허넷 홈페이지'

를 신설하여 기존의 '전자출원, 온라인제증명발급'과 같은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며, '특허고객 콜센터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콜센터 이용정보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한다. 그리고 특허행정의 개선, 발전을 위한 특허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기 위해 정책토론포럼 기능을 보완하였고, 발명인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인 '발명인 한마당'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또한 '특허정보마당'이 신설되어, 알차고 풍부한 특허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인에게 유용한 특허청의 주요 간행물에 대한 전자북(e-

book)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특허청은 금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전자정부 선도기관에 걸맞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발굴,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3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국감 통해 특허계 발전 논의

지난 10월 15일 특허청 국정감사 이후 자료들과 해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내 특허출원이 일부 변리사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허료 관리체계가 특허제도 본연의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 서갑원(열린우리당)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변리사가 특허출원한 64만3천7백44건 가운데 13만5천9백33건(21.1%)이 출원건수 상위 20명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상위 변리사 20명이 차지하는 특허출원 비율은 지난 2002년 20.3%, 2003년 21.2%, 올해 22.1%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3년째 1위를 차지한 변리사는 총 1만9천3백14건의 특허출원을 대행해 연 평균 6천4백38건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등록 변리사가 2천8백여명인 것으로 확인된 바, 변리사 1인당 평균 출원건수인 81.7건에 비해 79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지난 4월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정해 시행한 결과 출원료를 제외하고 수수료 비중이 클수록 인상이 높다'며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등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연차료 미납에 따른 특허권리 소멸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허료 관리체계가 특허제도 본연의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WIPO·한국특허청 전자출원 처리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한국 특허청과 공동으로 전세계 특허청을 위한 국제출원 정보시스템을 개발기로 했다고 지난 10월 5일 밝혔다.

WIPO에 따르면 양측은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전자 형태의 출원서를 관리하게 될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 PCT에 가입한 전세계 특허청에 제공해 이를 폭넓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 특허청과 WIPO가 공동으로 개발할 'PCT-ROAD'는 국제특허 출원인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서류를 해당국 특허청에서 신속히 접수 및 처리토록 하는 데 주요안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계 특허청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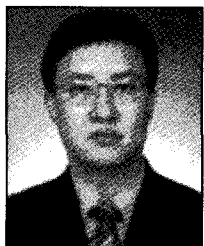
최근 제네바를 방문한 김중갑 한국 특허청장은 이에 대해 'PCT-ROAD가 한국 특허행정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점을 WIPO가 인정한 셈'이라면서 '각국의 특허청이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차장도 전세계적으로 PCT의 전자출원이 가능해진 만큼 이번 사업은 출원인은 물론 특허당국 모두가 시간적, 경제적인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자출원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따라서 WIPO와 전세계 특허청이 PCT 관련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WIPO는 전자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2월부터 전자적 형태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의 특허 당국에서 이를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남아있었다.

한국특허청의 경우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개발, 일선업무에서 활용하고 있어 WIPO의 협력 요청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WIPO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면 전세계 모든 특허청은 WIPO는 물론 한국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 전상우 특허청 차장 송주현 특허심판원장 승진 임명



전상우 특허청 차장



송주현 특허심판원장

정부는 특허청 차장(별정 1급)에 전상우 특허심판원장을, 특허심판원장(1급)에 송주현 특허청 발명정책국장을 승진 임명했다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전상우 신임 특허청 차장(51)은 행시 18회로 산자부 산업정책과장, 산업기술과장을 거쳐 특허청 기획관리관, 국제특허연수부장을 역임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특유의 추진력으로 특허심판 제도와 절차 개선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주현 신임 특허심판원장(55)은 비고시 출신으로 지난 77년 특허청 개청 당시부터 몸을 담아 상표심사관, 전산과장, 상표의장심사국장, 발명정책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상표·의장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

웰빙 시대의 바퀴 바람,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이들이 5백만명을 넘어지면서 이에 대한 특허출원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주 5일제가 보편화되고 웰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는 재미와 함께 운동 효과도 큰 인라인 스케이트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5년간 이 분야의 특허 출원은 연간 10여건에서 1백7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허출원의 증가는 인라인 스케이트 인구가 5백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내 인라인 스케이트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인라인 하키, 인라인 마라톤, 각종 묘기를 즐기는 스팀트용 등 새로운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한 기술개발이 계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들어 초기의 단순 운동용 인라인 스케이트 제품으로부터 스피드 경주를 위한 제품, 묘기를 즐기기 위한 제품, 비포장 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한 제품, 하키 경기나 피겨 스케이팅을 위한 제품 등이 새롭게 소개되면서, 새로운 인라인 스케이트에 적합한 급제동, 급가속, 큰 충격 및 고속주행에 견딜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국내 인라인 스케이트업체가 K2, 살로몬 등의 외국 선진업체와 중저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 업체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개발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1천여개에 이르는 국내 인터넷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를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제품에 반영하고 특허를 취득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⑤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다

국내에 출원을 하고 12개월 내에 해외 출원을 하여야만 국내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우선권제도), 국내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국내출원이 공개되어 해외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등 해외출원에도 시기적 제한이 있으므로 적기에 출원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 미국, 에드워드 멘델 사(社)의 거절결정건

미국의 에드워드 멘델사는 '서방성 제형(알부테롤)'에 관한 특허를 1995년 11월 3일에 미국에 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2000년 1월 7일에 한국에 출원하였다.

에드워드 멘델의 한국출원은 미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로 되어 있는 우선권 주장기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동 출원이 공개된 시점마저도 넘기고 뒤늦게 출원된 것으로 특허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에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Tip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제도를 이용하자!

PCT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1백23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PCT 출원으로 모든 회원국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원단계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PCT 국제출원을 하면 1백23개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단 부여하고 추후 실제로 출원할 국가에 대하여만 국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책속의 이야기 14

「발명으로 꿈을 이룬 지구촌 여성들」 '큰 마음이 낳은 위대한 발명품'

1972년 5월 28일 캐나다에서 태어난 라첼은 다른 소녀들처럼 자수나 스포츠, 피아노 연주 등을 즐기는 평범한 소녀였다.

라첼은 여섯살 때 놀이를 하다 떠오른 첫 아이디어를 어느 경시대회에 제출하였다. 여덟살 때 천문과 흑성에 흥미를 갖게 됐고, 열한살 때는 학교를 대표하여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했으며, 그녀를 발명가가 되게 한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언어를 생각해냈다.

라첼은 '신체적으로 마비되었거나 뇌성마비에 걸렸을 때 물을 마시고 싶거나 텔레비전을 켜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늘 스스로에게 자문했다. 그녀는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의사전달방법을 발명한 찰스 블리스의 업적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블리스 심벌릭스'로 알려져 있는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언어를 바탕으로 값싼 컴퓨터에 특별한 키보드를 설치하여 장애우들이 손쉽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영어단어를 스크린이나 테이프에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라첼은 '이들은 센서 위에 그려져 있는 기호들을 가볍게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 장애우들은 조금하기 때문에 지우는 키도 부착시켰다.'

사람들의 이름을 블리스 심벌릭스 코드와 일치시켜 그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간단한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인쇄기능 키도 만들어 놓았다'라며 영어에서 프랑스어 까지 이 컴퓨터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대부분의 발명가들처럼 라첼도 자신의 발명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실험하는데 소비했고,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명하고 견본을 만드는데 몇 달 동안이나 작업을 했다.

1985년 5월 그 계획은 청년과학재단이 주최한 캐나다 과학박람회에 출품되었다. 라첼은 컴퓨터 과학 부문에서 은메달인 2등상을 수상했고, IBM에서 수여한 3백 달러의 상금도 받았다.

그녀의 발명품은 불가리아의 플로르디브에서 개최한 세계 젊은 발명가 발명품 전시회에도 전시되었다.

아이스텍, 냉각캔 개발하고도 부정적 인식에 냉가슴

국내 벤처기업이 캔에 든 음료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냉각캔'의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고도 냉각캔 기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서울 광진구 소재 벤처기업인 아이스텍(대표 서원길)은 최근 캔을 이중으로 만든 뒤 캔 사이의 압력차이로 인해 캔을 오픈하는 순간 온도를 순간적으로 냉각시켜주는 냉각캔의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특허 출원에 나섰다.

단 한번 냉각기능을 발휘하는 냉각캔 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냉각화장품 용기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 상품화도 계획 중이다. 냉각화장품 용기는 펌핑을 할 때마다 내용물의 온도가 낮아져 실내온도에 관계없이 화장품을 항상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아이스텍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하고 있다. 그동안 냉각캔 개발에 대한 수많은 실패 사례로 인해 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90년대 말 냉각캔 개발을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결국 상품화에 실패해 '사기성' 혐의를 받은 모 벤처기업의 사례가 사람들에게 늘 회자되고 있어 냉각캔 개발업체라고 하면 일단 외면한다'며 '투자유치나 상품화 과정에서 너무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 회사는 기술개발에 대한 일체의 외부 홍보를 사절한 채 투자자나 실수요업체들과만 접촉하며 제품을 들고 가서 시연해주고 기술적인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신뢰가 쌓이면서 아이스텍은 최근 해외와 국내 투자자로부터 대량설비를 갖출 수 있는 투자자금을 모두 확보했다.

냉각캔은 이중캔의 압력차를 이용해 열을 빼앗는 기술로 지난 1985년 기술적 이론이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상품개발에 도전했으나 아직 실용화에 성공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